

『금오신화』로 본 한국애정비극의 특성* —동아시아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 창 현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목 차 >

I. 서론	V. 결론
II. 연구의 시각과 방법	참고문헌
III. 동아시아적 사유와 한국애정비극의 특성	Abstract
IV. 한국애정비극의 전통에서 본 『금오신화』	

Key words(중심용어): 비극(Tragedy), 금오신화(Geumo-sinhwa), 만복사저포기(Manboksa-jeopo-gi), 이생규장전(Yiseng-guijang-jeon), 오이디푸스왕(Oedipus the King)

국 문 요 약

『금오신화』의 두 비극,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불교적 색채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드럽고 느리며 매우 서정적인 방식으로 비극적 세계관을 환기시키고 깨달음을 준다. 이것은 격렬한 파국을 통해 인간을 자기 존재에 접하도록 하는 서양 비극과는 크게 다른 미적 특성이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를 포함한 세계와 인간 자신인 자아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동아시아적 사유와 인간을 신과 운명 앞에 내던져진 존재로 인식하는 서양적 사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내면의 고귀함을 지킴으로써 신과 자신 앞에 당당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적인 인간이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 이것이 운명애와 비극적 저항정신의 타협이다. 오이디푸스는 그의 무덤이 있는 나라가 번성할 것이라는 신탁을 통해 결국 운명(신탁)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지켜낸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자연의 ‘관계’가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애정비극이 많이 나타난다. 개인들이 서로 품은 정과 의리는 때로 우주질서마저 유보시킨다. 죽은 연인과 살아있을 때와 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절실한 원망(願望)이 우주자연의 힘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주질서의 유보에는 한계가 있다. 거대한 우주 안에서 개인은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7-A00428).

존재론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극이 가능해진다. 한국 비극의 ‘운명애’는 결국 우주와 인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비극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한국 애정비극의 저항정신은 연인들이 끝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복사저포기>가 불교적 초극을 기획하지만 그 주인공이 끝내 결혼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쓸쓸한 결말은 독자들에게 긴 여운과 함께 인생과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특히 <이생규장전>의 결말방식은 한국비극의 한 특징적인 모습이 잘 정련된 양상이다. 아내와의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죽는 이생의 모습은 매우 강렬하다. 이것은 생육신(生六臣)으로서 의리를 중시한 작가의 기질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 죽은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정이 담겨있다고 보면 이 강렬함의 원인을 비분강개에서 찾을 수 있다. 의(義)에 정(情)이 개입함으로써 비분강개의 비극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상사병(相思病)으로 죽는 남녀에 대한 무수한 설화들이 있다. 상사병의 걸쭉한 한과 수탉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나무꾼의 간절한 원망을 넘어,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적인 비극의 완성된 전형을 본다.

I. 서론

『금오신화』는 한국소설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책이다. 오랫동안 ‘한국최초의 소설’이라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70년대 중후반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한국소설의 시원을 나팔여초로 소급한 이후에도 여전히 소설사의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저작으로 인정되고 있다.¹⁾ 그 외에도 특기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책에 실린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이 한국비극소설의 전범이라 할 만한 정통성과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²⁾ 이 두 작품의 비극성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고 그 수준도 낮지 않지만, 서양 비극의 전통을 염두에 두고 비교미학적 접근을 한 경우는 없었다. 다른 문화와 변별되는 한 문화의 특성은 비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은 『금오신화』의 두 작품,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이 지닌 비극성에 대한 비교미학적 고찰을 통해 한국비극의 미학적 기제를 규명할 기초를 마련하는 데 그 목표를 두기로 한다. 여기에서 ‘미학적 기제(機制)’라는 것은 비극의 미학적 작용, 즉 공포와 연민 같은 비극적 감동을 자아내어 어떤 정서적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요체와 근원구조를 의미한다.³⁾ 이 같

1)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적어도 주왕산(『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101쪽) 이후 이십오 년 이상 한국 최초의 소설이라는 지위를 지녔는데, 지준모(「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 『어문학』, 32, 한국어문학회, 1975), 임형택(「나팔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학회, 1981) 등이 한국소설의 기원을 신라 시대까지 소급하였다.

2) 이 두 작품은 <김현감호>, <조신>, <도미>, <설씨녀> 등 한국 고대서사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으면서도 예리한 작가의식, 한층 성숙한 서사구조, 뛰어난 표현력 등을 지닌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연민과 공포를 일으키며, 그와 같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이 카타르시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공포와 연민-비극적 깨달음을 중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현,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파악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고대학』, 13집, 2006 참조.

은 미학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작품의 비극성에 대한 근원적이고 미학적인 이해에 도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비극’이며, 『금오신화』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서양인들에게 있어 비극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서양인들에게 있어 비극은 단지 하나의 예술양식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 비극은 세계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찰이며, 자아와 세계의 불화 속에서 유한자(有限者)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자존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예술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예술 중에서 유독 비극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부터 시작되어 로마 시대를 지나 근대철학, 특히 실존주의로 이어진다(김창현 2007). 비극이 단순한 예술장르, 혹은 양식이라면, 그것이 동아시아나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런데도 서구 학자들은 동아시아 문학이나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나라의 비극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 때 비극이 그리스나 엘리자베스 시대에 무대에서 공연되었던 바로 그 ‘비극’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경우 비극은 장르나 양식 개념을 떠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철학적이어서-미학적인 개념이 된다. 다시 말해 ‘비극적 세계관’과 그 극복을 형상화한 문학예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는 비극이 없다는 말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 ‘비극적 세계관’이란 자아와 세계의 불화를 기초로 유한자인 인간은 결코 전체(혹은 절대자)인 세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지극히 보편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있으며, 이를 형상화한 예술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극적 세계관의 인식 체계와 그 극복을 위한 사유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전통 비극문학은 서양 비극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 비극에 대해 물어보는 서구 학자들의 궁금증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글이 풀어보고자 하는 문학적인 근본과제도 이 지점에 있다.

II. 연구의 시각과 방법

고귀한 영웅의 운명적인 좌절을 주로 다룬 그리스 비극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랑 하는 두 연인의 좌절을 다룬 애정비극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사실 서양의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애정’과 ‘비극’을 묶는 ‘애정비극’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비극은 ‘영웅’ 및 ‘운명’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그리스 비극의 영웅들은 고귀한 보편윤리로서 명예와 공공 가치에 대한 자발적 희생—이것은 때로 자신에 대한 단죄로 나타난다—을 통해 한계 지워진 존재로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킨다. 하지만 애정은 불과 수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남녀 간의 애정은 본능적이고 사적(私的)인 감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애정비극’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애정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기반에 대한 고찰과 단지 서로에게만 영웅일 뿐인 연인들이 모두의 영웅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애정비극이라 할 수 있는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 주목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온다. 첫째는 앞에 말했듯이 고귀한 주인공의 운명을 주로 다룬 서양비극과 달리 한국은 고대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애정과 관련된 비극문학 작품이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정비극인이 작품들이 한국비극의 특징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서양에서 비극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리스 비극과 양상이 많이 다른 애정비극을 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충분히 드러나게 해서 이 글이 지향하는 한국비극문학의 본질적인 고유성을 가장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양비극에서 주인공은 대개 영웅적인 품성과 능력, 고귀한 신분을 지닌다. 그렇게 해야 그가 운명의 희생물이 되는 과정이 더욱 장엄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애정을 주제로 한 비극은 두 연인의 사랑 때문에 낭만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주인공들이 지향하는 바도 공공가치를 지닌 명예나 사회적 신뢰 같은 것이 아니라 사적(私的)인 애정성취에 집중하게 된다. 장엄하기보다는 낭만적이고 비장하기보다는 비애스러운 사랑이야기의 ‘비극성’을 논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같은 문제를 논하기에 가장 좋은 작품의 하나가 <이생규장전>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의 본질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비극의 특성이 의미 있게 해명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비극의 개념을 철학적·미학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애정비극의 고유한 특징과 그 역사적 전통의 흐름 속에서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에 접근할 것이다. 한국문학연구에서 비극성은 비·애·원·한(悲·哀·怨·恨) 등과 별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어 왔다. 다시 말해 슬픈 여러 양상들이 곧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슬픔’이나 ‘비에’ 등의 개념이 아니라 ‘비극’이란 개념을 사용할 때는 이 개념이 지닌 서양적 함의의 영향을 받는다. 근대화 이후 우리가 서양문화의 세례를 받으면서 ‘비극’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비극’, ‘비극성’은 양식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문학의 비극성과 서양문학의 비극성이 서로 만나고 비교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앞에서 언급했듯 철학적으로 제기되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이란 서양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역시 ‘비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서양인들이 비극을 둘러싸고 했던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그들 못지않게 치열하고 깊이 있게 전개했던 것이다.

한국고전문학에서 애정을 제재로 한 비극작품은 거듭된 전란으로 인한 과거 문화유산의 유실과 남녀 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수 세기 이상 지속된 문화적 풍토 등을 감안하고 본다면 적은 편은 아니다.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는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애정과 그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으며, <선녀와 나무꾼> 같은 설화들 역시 대단히 독특한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심생전>, <운영전> 같은 높은 수준의 비극소설을 낳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비극문학을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관련시키고자 한다면 작품과 그 작가를 함께 아는 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작가의 삶과 작품 속에 나타난 삶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 내면의 고민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금오신화』의 작가 김시습은 유가(儒家)이면서도 불도(佛道)의 사상을 공부하여 누구보다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

하고 느끼며 살아간 인물이다. 이러한 고민이 반영되어 이 작품집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불도의 사상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또 이 두 작품 사이에는 <이생규장전>이 <만복사저포기>보다 그 비극적 구조가 선명하고 격렬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애정비극소설을 연구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명히 드러내는데 이 두 작품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문학연구에서 비극적인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드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연구들은 대개 ‘비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⁴⁾ 이에 비해 『금오신화』 두 작품의 비극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최삼룡의 연구는 이 작품들의 특성을 비극성으로 파악하고 그 초월이라는 문제까지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김명순의 논의는 드물게도 우리 문학의 비극성에 대한 개인의 지속적인 연구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최삼룡 1981). 하지만 비극성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두 작품 중 특히 <이생규장전>의 구조적·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비극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만(최숙인 1980; 김용덕 1983; 설성경 1986; 이대규 1989; 박일웅 1993; 채연식 2000), 비극성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특히 서양의 비극전통과 비교를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⁵⁾

이처럼 한국의 비극문학에 대한 비교미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문학의 희극성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국문학에 나타난 해학과 풍자에 대한 연구는 물론 ‘행복한 결말’에 대한 고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탈춤이나 판소리의 연구에서 흔히 보이듯 비교미학적 접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해학 혹은 우아한 미의식과 비극의 관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미의식과 관련해서는 김학성, 조동일 등의 우수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김학성 1985; 조동일 1973).

서구문학에서 비극은 그 개념 형성기에 주로 지식인층의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 때문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인식이 비극의 아주 주요한 기틀이 되었다. 왕이나 고귀한 신분, 그리고 그들의 국가나 가족, 혹은 신에 대한 책임감 등이 비극을 장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비극이 드물다. 성공한 왕들의 신화(건국신화류)는 비극이 되기 어렵다. 게다가 오랫동안 동아시아 지식인의 이념이 되어 온 유가적 세계관은 ‘안빈낙도(安貧樂道)’와 ‘천석고황(泉石膏肓)’의 현실순응, 자연순응을 체화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방향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는 상층비극에만 주목하지 않고 하층비극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층비극을 구성하는 미학적 구조와 세계관에 관심을 기울여, 우리 조상들의 비극관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서구적 입장에서 볼 때 전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획기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이에 대해서는 김창현의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파악을 위한 시론」(『동아시아고대학』13집, 2006, 84~87쪽) 참조.

5) <만복사저포기>의 기존논의에 대한 고찰은 김창현,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불교와 비극성의 초극」(『불교학보』44집, 2006, 252~255쪽) 참조.

서구에서는 하층비극까지도 상층비극의 전범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현대비극론』처럼 현대문화연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도 그리스 비극의 전범은 여전히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Williams 1985). 그러므로 하층비극의 미학적 특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체계화할 수 있다면 서양문학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고소설은 물론 판소리나 탈춤의 비극성에 대한 연구들은 여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금 더 서양문학에서의 비극성과 우리문학의 비극성을 구분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후자는 ‘비극적인 것’에 대한 세계문화사적 보편성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할 보다 복잡한 문제다.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세계의 횡포에 대응하는 유가적 감수성을 편의상 두 가지로 본다면,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는 ‘타협을 통한 만족’이다.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군자라는 것이다. 이런 자세에서는 비극적 세계관이 발생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이념의 핵심적 강령을 위협하는 어떤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비분강개(悲憤慷慨)’이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그가 고귀한 성품을 지녔는데도 운명적으로 범죄하고, 스스로 그 범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도—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책무 때문에—쉽게 생명을 끊을 수 없는 데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운명애(運命愛=amor fati)와 비극적 저항정신의 타협이 일어난다. 그런데 탐관오리의 발호에 분노하는 사대부의 시에서는 시인의 도덕적 우위가 거의 절대적이어서 비극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들은 나라와 왕실의 몰락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강고한 비타협성은 명분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나온다. 이 명분은 그 위에 비극의 성을 쌓기에는 너무 가파르다. 비극은 이들의 단호한 태도가 아니라 죽지 못한 자들이 이들의 죽음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명분 앞에서 개인을 사유하지 않았겠는가, 가족을 생각하고 삶에 대한 미련을 품은 일이 없었겠는가 하고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비분강개의 비극성’에 대한 고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것을 꼭 ‘비극성’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답하려면 지난한 미학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도 필요하다. 지식인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된 것이 분명한 비극문학 작품을 분석하여 이것과 그들의 세계관을 대조하는 것이다. 그 가장 좋은 대상이 『금오신화』이다. 특히 <이생규장전>은 ‘비분강개’에서 ‘비극적 아름다움’으로 가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Ⅲ. 동아시아적 사유와 한국애정비극의 특성

동아시아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귀신을 모두 자연=음양(陰陽)의 조화로 나타나는 수 많은 것 중의 하나로 인식했다. 그것은 사람의 운수를 관장하는 것이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인 태극이나 음양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일관된 의도를 가질 리 없기 때문에 운명의 개념 또한 서양과는 달라진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불변의 것도 아니다. 기미를 살펴 조심하면 불운을 피할 수도 있고, 함부로 살면 불운을 불러

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간, 즉 자아 쪽의 책임이 커지게 된다. 좌절된 장수들의 이야기에는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나 배신, 흔히 음양오행과 관련된 금기에의 저촉 등, 일이 틀어진 이유에 대한 삽화가 많다(김창현 2007, 17-18).

그런데 애정비극인 경우에는 양상이 다르다. 그 원인이 대개 남녀 간의 사랑, 그 자체에 있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용자들이 감정적으로 사랑 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배경으로 돌려지게 되어 사회적인 비판의식이 강화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것은 주인공이 당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장렬하게 죽는 경우에도 비슷하다. 하지만 보편타당한 가치가 강조되면 이를 위해 투쟁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강조되어 이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 비해 남녀 간의 사랑은 이념보다는 인간의 보편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훨씬 서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전통비극문학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운명보다는 보편가치나 사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위에서 상술한 것과 원인이 같다. 신탁이나 신의 개입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사람 자신이나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은 사람 자신이 서양에서보다 더 중시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우주자연의 일부라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유—만물제동(萬物齊同)의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이 비극적 세계관의 극복 방식도 전혀 다르게 한다. 스토아 철학은 인내와 신중함, 성찰을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유한자로서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존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장자는 물론이고 공자 같은 현실적인 철학자조차도 자연 속에서 즐기는 삶을 꿈꾼다. 단사표음(簞食瓢飲)의 도락(道樂)이 여기에서 가능해진다.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주와 똑같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비극작품에서 그 극복의 양상이 때로 너무 낭만적이거나 너무 서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같은 세계관, 혹은 사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비극적 세계관에서 자아는 ‘사유하고 욕망하는 나’이며, 세계는 ‘나를 둘러싼 전체의 힘’으로 그리스에서는 운명, 신의 뜻으로 이해되었지만, 근대로 올수록 여러 가지 사회적 질서를 포함해 자아를 압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힘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적 사유에서는 이 세계가 ‘자연의 이법’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태극음양의 개념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유가나 도가는 물론 불교도 어떤 의도를 지닌 초월자가 아니라 공평무사한 이치에 따라 우주가 운행하며 인간도 그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아와 세계를 대립적 계층적으로 사유하는 강력한 이원성이 서양적 사유라면, 동아시아적 사유는 대립이 곧 화합이 되는 끊임없는 변화, 즉 상생상극의 화변(化變)이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다(김창현 2007, 16-17). 이 사유의 차이가 비극의 구조를 바꾼다. 서양 비극의 구조에서 특히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카타스트로피, 즉 ‘파국’이라는 결말구조이다. 이 파국은 결국 주인공의 좌절이 확인되는 격렬하고 극적인 순간을 말한다. 이것은 서양비극이 그리스 비극이라는 무대극을 기원으로 한다는 장르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비극소설에서는 파국이라고 하기에는 완만한 결말도 많고, 파국이라 할 만한 격렬한 결말도 다른 서사적 장치에 의해 연장되어 그 충격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갈등전개

의 차이와 더불어 결말구조의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살피는 것도 비극성의 차이를 밝히는 한 방법이 된다. 이때에 전술한 이원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의 비극문학을 풍성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양산속진」은 왜군의 진입에서 죽음까지 숨 가쁘고 비장한 서술을 통해 서양 고전비극의 파국에 값하는 강렬한 결말을 보여준다. 비분강개의 비극성이다. 여기에 이어지는 그의 전우와 가족들의 장렬한 죽음이 주인공의 죽음에 보다 강렬한 운명의 빛깔을 칠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양비극의 비장한 시적 묘사가 없고, 나열되는 죽음의 수가 너무 많다. 이 파국의 연장이 결구의 강렬함을 완화하면서 비극성에 의해 보편가치를 내면화하게 한다(김창현 2007, 92-97 참조). 이처럼 비분강개의 비극성은 운명을 극복하고자 가치를 지키는 주인공의 의지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고자 운명을 극복하는 주인공의 결의를 보여준다.

서사무가는 또 다르다. 당금애기나 바리데기는 죽지 않고 신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신이 되었다 해서 고난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이 보상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식을 낳고 기른 정, 어버이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하는 정, 그런 정에 고해(苦海) 속에 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짊어지고 그들은 신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힘없는 민중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민중들이 가장 믿을만한 신이 된다(김창현 2007, 20-22 참조). 이제 이들은 인간들의 고난을 같이 지고 가게 된 것이다. 한계 지워진 인간의 운명이 되새겨지지만, 이들 신들과 인간들의 유대는 부모자식 사이처럼 끈끈하다. 여기에는 운명에 대한 우려와 수궁이 혼재하며, 인간 삶에 대한 정한이 가득하다. 신들의 비장하고 신성한 삶 속에는 현실에 대한 타협의 산물인 우미(優美)가 촉촉이 배어 있다.

이 중간에 <만복사저포기> 같은 애정비극이 있다. 장엄하기보다는 낭만적이고 비장하기보다는 비애스러운 사랑 이야기의 ‘비극성’은 서정적인 장치들을 통해 심화된다. 야스퍼스의 말처럼 비극의 미학적 의미가 ‘인간이 자기의 현존재와 마주함’에 있다면 파국을 통해 분출되는 장렬함이 아니라도 한국의 서정적이고 비극적인 애정소설들이 충분히 그러한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Jasper 1999, 32 참조). 애정의 보편적 가치는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의 투영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애정비극의 확산과 통속화는 사교계나 문화시장의 발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애정비극은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언어로써 진술하지 않아도 사람은 보편적으로 비극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넘어서고 싶다는 존재론적 욕망을 지닌다.

IV. 한국애정비극의 전통에서 본 『금오신화』

한국 상층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충효열(忠孝烈)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정소설, 특히 비극적인 애정소설의 경우에는 보편이념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남녀상열을 운운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보통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 사이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면서도 역학적 사유나 불교적 사유 같은 동아시아적

근원사유를 바탕으로 한 매우 깊이 있는 비극성이 형상화되어 있다.⁶⁾ 「김현감호」와 「조신전」의 전통 위에서 꽃을 피운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은 비극소설로서 같은 시기 어느 문화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서양비극과 비교해서는 서정성이 매우 풍부한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한문으로 쓰여 있고, 양반 지식인의 사유를 반영하고 있지만, 설화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수용되어 있다. 작자의 경험과 뛰어난 문재(文才), 그리고 유불(儒佛)의 사상이 혼용되어 있어 이 같은 성취에 이른 것이다.

「김현감호」나 「조신전」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윤회전생(輪廻轉生)이라든가 인생무상(人生無常)의 사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김현감호」는 보다 애정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 「조신전」은 불교적 깨달음 쪽에 무게를 싣는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비극적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종교이다. 인생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해(苦海)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의 깨달음은 비극적인 윤회전생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조신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불교적 깨달음을 추구한다. 조신이 도량을 벗어나게 되는 것은 연정(戀情)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은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불교적 깨달음을 통해 비극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제로 하고 있다. 비극이면서 비극이 아닌 셈인데, 그대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다만 생생한 꿈의 내용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극적 세계관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작품 전체의 길이가 길지 않고 행복한 삶보다 고해로서의 인생을 부각하고 있어서 비극적 세계상의 강조는 그 극복에 해당하는 불교적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김현감호」는 무엇보다 호녀의 사랑을 부각하고 있다. 이 사랑은 당사자들이 넘을 수 없는 운명, 종족의 다름과 하늘의 뜻에 부딪혀 좌절된다. 전형적인 애정비극이다. 하지만 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좌절을 자발적인 희생으로 만든다. 굳이 서양식의 운명애(運命愛)가 아니라도 이것으로 비극은 훌륭히 완성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다소 특이한 결말이 따라 붙는다. 남자 주인공인 김현이 절을 지어 호녀를 위로하는 것은 이 작품의 불교적 특성을 볼 때 당연하다. 특이한 것은 “김현이 죽을 때가 되어 지난 일의 기이함을 새삼 깊이 느끼고 이에 전을 만드니, 세상이 비로소 알아 호림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명칭의 유래를 밝히는 것도 전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절을 지어 은혜를 갚고도 오랜 세월이 지나 ‘죽을 때가 되어’ 다시 그 일을 새삼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다. 사랑, 정, 인연의 길고 질감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여러 가지로 획기적인 작품이다. 먼저 그 길이와 구성에서 기존의 작품들과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모두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여기에서 비극적 세계상이 구성된다. 자연법칙으로 볼 때 산 자와 죽은 자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 양생은 죽은 여인의 명복을 빌어준 뒤 지리산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 마친 바는 알 수 없다는 ‘부지소종(不知所終)’의 결말을 보여준다. 이 ‘사라짐’의 미학을 두고

6) 상층애정소설에서 불교적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념으로서 작동하기보다는 유희와 같은 보편이념을 탐색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불교 도량을 배경으로 하고, 부처님과의 저포놀이로 시작한다는 점, 불교적 인연설과 생사관이 표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별이라는 운명의 초극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초극이란 물론 현실 속에서 정면으로 대결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제3의 길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자연으로의 귀의라는 동아시아적 사유의 표명으로도 읽히고, 다른 한편으론 정업(淨業)을 닦아 부처가 되라던 귀녀의 당부를 수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가가 ‘부지소중’ 앞에 굳이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양생은 결국 여인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나라에 남자 태어났다. 이제는 남자가 되어 있을 그녀를 위해 결국 결혼하지 않은 것인가. 이 작품은 초극의 시도이되 이 시도의 성공 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다(김창현 2006, 259-261 참조).

이 같은 결말은 「이생규장전」의 주인공 이생이 아내의 귀신과 헤어진 후 끝내 죽어버린 것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생의 죽음은 아내에 대한 집착을 끝내 버리지 않은 것이며, 이는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힘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도 우회하지도 않는 정면 승부였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근원으로 언급되곤 하는 『전등신화』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한국의 어떤 이야기와도 다른 이 작품만의 중요한 특징이다. 어떤 이유로 김시습은 이 같은 결구를 구상했을까? 이 때문에 이 작품이 작가의 정치적 역정—이것은 그의 삶 그 자체이기도 했다—과 관련된 알레고리라고 보는 시각이 정당성을 갖는다. 이생이 김시습이라면 최낭자는 정당한 왕(들)이다. 생전의 최낭자는 매우 적극적이다. 이는 그를 불러 친견하고 그의 장래를 약속해 주었던 세종을 떠올리게 한다. 사후의 최부인은 왕위를 잃은 단종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끊어진 정당한 왕통의 형상화로 볼 수 있다. 이생은 자신의 친구가 불에 타 없어진 뒤, 처가를 찾아 폐허 속에 있다가 부인을 만나게 된다. 부인은 비록 목숨—왕위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을 잃었으나 결코 정절—정통성—을 잃지는 않았다. 이생은 비록 아내가 목숨을 잃은 줄 알았지만, 이때부터 벼슬에 나갈 마음을 먹지 않고 그녀만을 바라보면서 3년을 지낸다. 그러나 천명을 어찌할 수 없어 그녀는 저승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생은 그리움에 병이 들어 결국 죽게 된다. 이 서사의 과정은 김시습의 생애와 그대로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의 결구가 지닌 장렬함이 쉽게 이해된다. 이것은 단종의 폐위와 죽음에 대한 비분강개의 형상화이다.

이에 비해 양생은 정면승부보다는 이를 초극하려 했다. 이러한 초극이 가능했던 것은 불교적 세계관이 「만복사저포기」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두 작품은 내용면에서 여성 주인공의 적극성과 남성 주인공의 한 여인에 대한 일관된 애정을 그렸는데, 전자가 「김현감호」를 계승한 것이라면 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김현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그 일을 되새기는데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사랑에 자신의 삶을 다 던진다. 또 시의 적절한 삽입에 의한 서정성의 심화, 양생의 방 앞에 이화나무를 배치하면서 서사공간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하는 수법 등,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작가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두 남자를 통해 한계자인 인간이 운명에 맞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만복사저포기」의 결말은 비록 깨달음의 결말을 확연히 보여주지는 않지만,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찌르거나 방황하다 생을 마치며 안식을 얻는다는 그리스 비극의 결말 이상으로 비극적 깨달음을 준다. 주

어진 운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꺼이 받아들여 존재(인간)로서의 존엄함을 지키자는 것이 그리스 비극의 메시지라면, 「만복사저포기」는 이러한 수용을 넘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을 꿈꾼다. 그런데 양생이 정말 해탈에 이르러 연인에 대한 정념이 사라지고 윤회 전생의 고리를 끊어 부처가 되었다면 이 작품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닐 것이다.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었다’는 결말은 정과 초극 사이에서 작품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은 비극적 깨달음과 사라지지 않고 남은 정을 모두 표현했다. 결말의 여운이 이어지며 독자들은 운명과 사랑에 대해 더 오래 더 깊이 느끼게 된다.

「이생규장전」의 주인공은 아내를 잊지 못해 죽는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생은 아내와 헤어져야 한다는 운명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운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는다. 『금오신화』에서 운명은 어떤 의도를 가진 존재(인격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김시습이 불교적 세계관에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교든 유학이든 도교든 동아시아에서 운명은 자연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유학이나 도교에서는 태극음양, 또는 그 상징인 하늘이나 천지신명이 되고 불교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그물이 운수와 관계된다. 이 자연법칙 혹은 우주법칙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 자체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생의 죽음 앞에서 독자들은 질기고도 처연한 애정애의 갈구를 읽고 그 아름다움에 젖는다. 이것은 압도되는 것과는 다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 앞에서 관객들은 압도된다. 순식간에 두 주인공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운명의 장난 앞에 할 말을 잊고, 연인의 주검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과격함에 또 가슴이 억눌리는 압박을 느낀다. 그러나 「이생규장전」에서 운명은 서서히 부드러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온다. 이생이 직접 아내의 죽음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난(亂)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별한 것이다. 하지만 집에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상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사실 이 아내는 죽은 영혼이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법칙(운명)에 속한다. 아내는 이것을 알고 있고 이생도 이를 느꼈을 것이다. 결국 3년 만에 이들은 헤어져야만 한다. 운명(자연법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두 사람에게 예외적인 특혜를 베풀 것이다.

한국문학에서는 가끔 사람이 자연법칙을 넘어서기도 한다. 사람도 자연과 그 법칙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존재를 전체 자연과 비교하면 미미하지만, 그러나 모래 한 알에도 우주가 들어있듯이 미미한 존재인 개인도 그 본질은 우주와 동일하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그 법칙이 수평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돌아왔고, 남자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에 귀신과 살을 섞고 살 수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일반적인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의지와 자연법칙 사이의 긴장과 조화에 의해 진행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두 사람의 의지조차도 자연법칙의 한 부분일 뿐이다. 강력한 인간의 의지가 자연법칙의 일상성을 잠시 흔들 수는 있지만 개인의 힘은 미미하고 다만 자연의 힘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생은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이를 따르게 된다. 이것은 자연법칙에 대한 저항으로 읽힌다. 그러나 운명이 서서히 부드럽게 두 사람을

적셔 왔듯이 이생의 저항도 그렇게 느리고 부드럽다. 여귀가 사라지자 곧장 가슴을 찢어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장례를 치르고 병이 나 몇 달 만에 죽는다. 정 때문이다. 나의 감정은 헤어질 수 없다고 운명에 저항하고 절규하지만, 싸울 상대(운명-자연법칙)가 내게 적대감을 가진 것은 아니다. 자연법칙은 공정하고 무한하여 만물을 꼭 같이 감싼다.

V. 결 론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집필한 후,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세조 치하에서 불경편찬사업에 관여하고, 성종 때 벼슬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이 작품들에서 보여준 세계관은 이를 이해하게 해 준다. 그의 유가적 윤리관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지만(비분강개), 한편으로 그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음양, 혹은 인과응보의 우주 법칙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윤리를 벗어난 영역, 존재와 인식의 영역에서 그것은 특정인에게 한 정된 책임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금오신화』의 두 비극,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불교적 색채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드럽고 느리며 매우 서정적인 방식으로 비극적 세계관을 환기시키고 깨달음을 준다. 이것은 격렬한 과국을 통해 인간을 자기 존재에 집하도록 하는 서양 비극과는 크게 다른 미적 특성이 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를 포함한 세계와 인간 자신인 자아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동아시아적 사유와 인간을 신과 운명 앞에 내던져진 존재로 인식하는 서양적 사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내면의 고귀함을 지킴으로써 신과 자신 앞에 당당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적인 인간이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 이것이 운명애와 비극적 저항정신의 타협이다. 오이디푸스는 그의 무덤이 있는 나라가 번성할 것이라는 신탁을 통해 결국 운명(신탁)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지켜낸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자연의 ‘관계’가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애정비극이 많이 나타난다. 개인들이 서로 품은 정과 의리는 때로 우주질서마저 유보시킨다. 죽은 연인과 살아있을 때와 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절실한 원망(願望)이 우주자연의 힘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주질서의 유보에는 한계가 있다. 거대한 우주 안에서 개인은 존재론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극이 가능해진다. 한국 비극의 ‘운명애’는 결국 우주와 인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비극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한국 애정비극의 저항정신은 연인들이 끝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복사저포기>가 불교적 초극을 기획하지만 그 주인공이 끝내 결혼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쓸쓸한 결말은 독자들에게 긴 여운과 함께 인생과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특히 <이생규장전>의 결말방식은 한국비극의 한 특징적인 모습이 잘 정련된 양상이다. 아내와의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죽는 이생의 모습은 매우 강렬하다. 이것은 생육신(生六臣)으로서 의리를 중시한 작가의 기질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 죽은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정이 담겨있다고 보면 이 강렬함의 원인을 비분강개에서 찾을 수 있다. 의(義)에 정(情)이 개입함으로써 비분강개의 비극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상사병(相思病)으로 죽는 남녀에 대한 무수한 설화들이 있다. 상사병의 곁쪽한 한과 수탉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나무꾼의 간절한 원망을 넘어,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적인—어쩌면 동아시아적인—비극의 완성된 전형을 본다. 이 작품의 비극성이 지닌 미학적 기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비극성이라는 보다 심화된 층위로 접근하는 단초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이유이다.

이 글은 『금오신화』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서양 비극과는 다른 한국애정비극의 미적 특성을 탐색해 보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한국애정비극의 모든 특질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개별 작품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운영전> 같은 후대의 소설은 물론 설화에 이르기까지 비극적 작품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명순 (1983). “금오신화의 비극성.” 『우전 신호열선생 고회기념논총』. 창작과 비평사, 1983.
- 김용덕 (1983). “이생규장전 연구.” 『한국문학탐구』. 민족문화사, 1983.
- 김창현 (2006).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과약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고대학』. 제 3집.
- 김창현 (2006).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불교와 비극성의 초극.” 『불교학보』. 44집.
- 김창현 (2007). “양산숙전의 비극성 연구.” 『온지논총』. 제 16집.
- 김창현 (2007). “이원성 극복의 두 양상: 비극과 서사무가.” 『비교문학』. 제 42집.
- 김학성 (1985).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 박일용 (1993).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일지사, 1993.
- 설성경 (1986).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 이대규 (1989).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해석.” 『국어교육』.
- 임형택 (1981).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 제 5집.
- 조동일 (1973). “미적범주.” 『한국사상대계』. 제 1집.
- 주왕산 (1950).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 지준모 (1975).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 『어문학』. 제 32집.
- 채연식 (2000). “애정류 전기소설 연구-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 최삼룡 (1981). “금오신화의 비극성에 대한 초월의 문제.” 『어문논집』. 제 22권.
- 최숙인 (1980). “이생규장전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 3권.
- Aristotle (1983). 『시학』. 김재홍 역. 고려대 출판부.

- Corrigan, Robert Willoughby. (1995). 송옥 외 역. 『비극과 희극, 그 의미와 형식』. 고려대학교 출판부.
- Jaspers, K. 1999). 황문수 역. 『비극론·인간론』. 범우사.
- Nietzsche, F. (1995). 광복록 역. 『비극의 기원』. 범우사.
- Sophocles (1998). 천병희 역. 『소포클레스 비극』. 단국대학교 출판부,
- Williams, R. (1985). 임순희 역. 『현대비극론』. 학민사.

Abstract

Characteristics of Korean Love Tragedies by Studying *Geumoh-sinhwa*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riental and
the Western reasons—

Chang-Hyun Kim*

Manboksa-jeopo-gi(萬福寺樗蒲記) and *Yiseng-guijang-jeon*(李生窺牆傳), which are two tragedies of *Geumoh-sinhwa*(金鰲新話), provide the tragic points of view with lessons in the soft, slow and lyrical way, regardless of the Buddhist colors. Such a style represents the esthetic characteristic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tragedy which makes people realize their own egos through the intense ends. It start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ental point of view, which values the universal world containing the existence of God fundamentally identical as the ego of humans, and the Western point of view which considers humans as those suffering from their own destiny before God. Because of this, the man of strong will, who wants to become dignified before God and himself by accepting his destiny and protecting his internal nobility, is in the center of tragedies in the Western world. This is the compromise between the destiny affection and the tragic resistant spirit. Oedipus overcame his destiny and protected his legitimacy through the oracle that the country where his tomb was located would flourish.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or humans and the universe is in the center of tragedies in Korea. Because of this, there are many love tragedies. The affection or fidelity among individuals sometimes even puts off the universal order.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for the character in the novel to keep living with his deceased lover as if she were alive. It reflects the possibility that one's earnest wish can be communicated with the universal power. However, there is a limit for putting off the universal order. It is inevitable for individuals to have ontological limits in the vast universe. Therefore, tragedies become possible. The 'Destiny Affection' which is shown in the Korean tragedies reflects the fact that the universe and humans share a fundamental identity. However, such a fact

*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Sung kyun kwan University

does not establish tragedies by itself. The resistant spirit of the Korean affection-oriented tragedies shows that lovers do not give up their affection for each other until they die. While *Manboksa-jeopo-gi* plans the Buddhist conquest, it shows a solitary conclusion that the character in the novel does not get married and disappears in the end. Such a conclusion provides the readers with a long lingering image as well a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and love.

The concluding method of *Yiseng-guijang-jeon*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tragedies well. Lee Saeng who cannot take the reality of his wife's death and dies at the end provides an extremely strong image. Thi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tendency of the author who highly valued fidelity as one of the six loyal courtiers.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s loyalty towards the deceased king is contained in this novel. As a result, the cause of the powerfulness can be found from the sorrowful indignation. It is possible to emphasize the tragedy of the sorrowful indignation by combining fidelity with affection. There are so many tales about men and women dying of lovesickness. Looking at the resentment related with love and the earnest love of the lumberjack who never forgets his love after becoming a rooster, we can find the complete model for Korean tragedies in this novel.

■ 논문접수일 : 2010년 03월 31일, 논문 심사일 : 2010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4월 20일